

이소(가제)

#1 - 교실 - 낮

텅 빈 교실.

책상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놓여 있다.

은찬(19, 남)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상에 얼굴을 묻고, 이어폰을 낀 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다.

잠시, 교실 안은 고요하다.

그때 윤서(19, 여)가 들어온다.

백팩 끈에 겨울 점퍼를 걸친 채, 자신 있게 교실 안으로 들어온 윤서는 은찬이 음악 때문에 자신을 눈치채지 못한 것을 보고 잠시 멈춰 선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은찬을 찍으려던 윤서는 화면 속 은찬을 잠시 바라보기만 한다.

결국 사진은 찍지 않는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은찬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간다.

양손으로 은찬의 등을 톡 치자-

은찬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킨다.

하지만 뒤를 돌아본 순간, 피식 웃는다.

윤서

미안, 오래 기다렸지?

이제 나가자.

윤서는 은찬의 대답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한다.

은찬은 휴대폰이랑 겂옷, 가방을 대충 품에 끌어안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은찬

이젠 학교 안 와도 되니까 기분 좋겠네?

윤서

너도 곧 대학생이잖아.

은찬

난 여기 계속 있잖아.

윤서

그래도 나보다 먼저 대학생 된다?

우리 개강 9 월이잖아.

은찬

(윤서의 말에 웃으며)

아.

윤서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은 선배님이다. 선배님~

은찬

어우, 재수 없어.

(잠시, 텅 빈 교실을 둘러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고?

윤서

있겠냐고.

윤서는 먼저 떠난다.

은찬은 서랍장을 바라본다.

이제는 비어 있는 두 자리.

이름표가 꽃혀 있던 자리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려다가 멈춘다.

그리고 윤서의 뒤를 따라간다.

#2 - 학교 앞 - 낮

윤서는 한쪽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금 짜증 난 표정.

은찬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다시 학교 건물을 바라본다.

잠시.

윤서는 휴대폰을 내리고 가볍게 기지개를 켜다.

몸은 반쯤만 은찬 쪽으로 돌리고.

윤서

엄마한테 서류 다 받았다고 했어. 이제 진짜 끝!

은찬

그래봤자 대학생인데.

윤서

아냐. 그래도 혼자 살고,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은찬

방학 땐 올거지?

윤서

니가 오면 되지.

은찬

아니..내가..

윤서

(은찬의 말 끊으며)

오늘 좀 돌아서 갈래?

은찬이 대답하기도 전에 윤서는 그의 소매를 잡아끌고 걸어간다.

#3 - 길거리 - 낮

천천히 길을 걷는 윤서와 은찬.

윤서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고, 은찬은 바닥만 내려다보며 걷는다.

윤서

진우가 벌써 서울 올라갔다던데.

연세대 개강 준비한다고.

이름에 반응한 은찬.

은찬

옆집인데 간 줄도 몰랐네. 인사도 없고.

윤서 웃는다.

윤서

니가 꺼지라며.

(잠시)

은찬

너네 개강이 9 월이면 여름에 애들 불러서 펜션이나 갈까? 송별회 할 겸.

윤서

아..나 근데 생각보다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은찬

어? 언제?

둘은 골목을 돌아 작은 분식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선다.

윤서

(대답을 피하며)

늘 먹던 걸로?

말문이 막힌 은찬이 고개를 끄덕인다.

윤서

(포장마차 주인에게)

오뎅 하나랑 떡볶이 하나 주세요.

잠시 후.

둘은 음식을 받아 근처 벤치에 앉는다.

은찬

처음 먹어본 지도 거의 10년 됐는데
맛이 그대로인 게 신기하다.

윤서

중학교 때는 맵다고 떡볶이도 못 먹었으면서.

은찬은 플래로이드 카메라를 꺼낸다.

은찬

잠깐.

사진 하나 찍자.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가나 보네.

둘은 무릎 위에 음식을 올려두고 사진을 찍는다.

윤서

넌 대학 가서도 올 수 있잖아. 집 가는 길에.

윤서가 은찬의 카메라를 빼서 같이 셀카를 찍으려고 한다.

찍힌 사진 속.

은찬은 얼굴 반쪽을 떡볶이 용기로 가리고 있고,
윤서의 얼굴만 제대로 보인다.

음식을 먹으며 카메라 갤러리 속 오래된 사진들을 넘겨본다.

조용히 웃고.

사진 속 기억들을 하나씩 짚어간다.

그러다 한 사진에서 멈춘다.

버려진 아파트 단지.

아무 말 없이.

윤서가 은찬을 바라본다.

은찬도 그녀를 바라본다.

잠시.

둘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4 - 버려진 아파트 단지(외부) - 오후

윤서와 은찬은 낮은 계단을 올라 잠시 멈춰 선다.

눈앞에 잡초로 뒤덮인 버려진 아파트 단지가 펼쳐진다.

둘은 여러 식물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

윤서

여기 진짜 빨리 밀어버려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이 상태 아니냐?

은찬

난 그래서 좋은데.
(주변을 둘러보며)
이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안 변한 곳 같아서.

둘은 안쪽으로 들어가 복도 끝쪽까지 와서 벽에 붙어 있는 낡은 게시판 앞에 멈춘다.
영수증과 종이 조각들이 수없이 겹쳐 붙어 있다.
윤서는 포장마차에서 받은 영수증을 하나 떼어 게시판에 붙인다.

#5 - 버려진 아파트(내부) - 오후

버려진 방 안.
생각보다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낡은 벤치.
줄조명.
구석에 놓인 작은 스피커.

윤서는 들어오자마자 줄조명을 켜고 방 안쪽으로 향한다.
그 순간
뒤따라 들어오던 은찬이 카메라를 꺼내 윤서를 찍는다.

찰칵.

윤서가 뒤로 돌아본다

윤서

뭐야?

은찬

그냥. 나중에 보면 기억나겠지.

은찬은 출력된 사진을 들고 벽 쪽으로 걸어간다.

윤서는 스피커 전원을 켜 뒤 천천히 벽으로 다가온다.

수백 장의 사진들.

윤서

신기하다.

사진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너는 별로 없네.

은찬은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본다.

윤서

(한 사진을 가리키며)

거봐. 중학교 때 찍은 건 이것밖에 없잖아.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때 여드름 엄청났는데.

은찬

내가 찍는 쪽이었으니까.

윤서

사진 없어도 기억나는데? 그 얼굴.

은찬

지금은 기억나지.

윤서는 답하지 않는다.

커튼을 닫고, 벤치를 제자리에 밀어놓은 뒤 앉는다.

은찬은 벽의 사진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낮은 책상 앞으로 걸어간다.

책상 위에는 키링, 편지, 책, 소주병과 라이터가 놓여 있다.

윤서

너 오늘 좀 이상하다.

은찬

뭐가?

윤서

가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하자.

은찬

원데?

윤서

나 너 10년 가까이 봤는데,
(일어서 은찬 쪽으로 가며)
진짜로 소리 지르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은찬

갑자기?

윤서

(은찬의 팔을 붙잡고, 창가로 끌고 간다)
너 맨날 참기만 하잖아. 한 번만 미친 사람처럼 해봐.

은찬

별로 안 내키는데.

창가 앞에 선 둘. 창 너머로 어두워지는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윤서

그냥 질러봐.
싫었던 거나. 못 했던 말 같은 거. 뭐든.

그리고 예고도 없이-

윤서

아아아아아아악-!!!

텅 빈 건물 앞으로 윤서의 목소리가 길게 울린다.
윤서는 은찬을 바라보며 웃는다.

윤서

이렇게.

은찬은 한참 윤서를 바라본다.

은찬

너 뭐 때문에 질렸는데?

윤서는 잠시 바깥을 바라본다.

윤서

모르겠다. 답답했나?

윤서는 다시 바깥을 바라본다.

윤서

자. 같이.

하나, 둘, 셋.

잠시.

윤서와 은찬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가 텅 빈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바다 쪽으로 퍼진다.
윤서가 먼저 멈췄는데도 은찬은 한참 더 소리를 지른다.

숨을 고른 은찬의 눈가가 조금 젖어 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린다.

은찬

이번엔 내 차례.

윤서

(단호하게)

싫어.

은찬

너 춤추는 거 싫어하잖아.

윤서

절대 안 해.

은찬

오늘 정도는 해도 되잖아.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은찬을 노려본다.

은찬

알았다. 알았어. 그럼...

은찬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넘기다가 멈춘다.

윤서

뭐 하나?

은찬이 화면을 돌린다.

‘진우’

윤서

어?

(잠시) 너 아직도 안 지웠어?

은찬

있는 줄도 몰랐네.

윤서

거짓말.

은찬

전화해볼까?

윤서

허어. 배신자라며.

은찬

그건 맞지.

윤서

또 시비 걸려고?

은찬

됐어, 안 해.

잠시.

둘은 결국 다시 웃는다.

#6 - 골목길 - 밤

윤서와 은찬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걷는다.

한동안 말이 없다.

윤서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한다.

아무 연락도 없다.

그럼에도 무언가 읽는 척 화면을 내려다본다.

윤서

이제 가봐야겠다.

은찬

응.

늦겠다.

둘은 걸음을 멈춘다.

잠깐 서로를 바라본다.

아무 말도 없다.

그리고-

은찬이 갑자기 윤서를 향해 빠르게 두 걸음 내딛는다.

거의 부딪히듯 윤서를 끌어안는다.

놓치기 싫다는 듯.

윤서도 천천히 팔을 올려 은찬을 안는다.

은찬은 얼굴을 반쯤 윤서의 점퍼에 묻고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는다.

둘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다.

멀리 차 소리가 지나가고,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바람이 분다.

하지만 둘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잠시 후.

윤서가 천천히 품에서 빠져나온다.

윤서

...또 보자.

은찬은 대답하지 않는다.

윤서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그저 윤서의 신발 끝만 바라보고 있다.

윤서는 작게 웃어 보인다.
그리고 몸을 돌린다.

그제서야
은찬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멀어져 가는 윤서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윤서는 계속 걸어간다.
멀리, 윤서의 뒤로 서 있는 은찬의 실루엣도 조금씩 흐려진다.

서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CUT TO BLACK.